건설인의 바른 얼굴 찾기

우리 건설인들은 이제 건장한 체격과 투박한 말씨로 '현장을 뛰는 사나이'라는 일반의 기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업 관리의 다양한 기술 지식을 되살려 매사에 깊은 검토와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적절한 배려와 세심한 관리로 최선의 성과를 이루는 자에게서 풍기는 '다정하고 지식 있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김영환
삼성물산 건설부문 자문역

건설 현장에서 반평생을 보냈다고 하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있다. 조금 민망스럽지만 아마도 거친 환경의 건설 현장 책임자로는 얼굴이나 평소 행동이 제격이 아니었던 모양이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곤 한다.

건설인의 모습을 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사람에 따라 다소 평가가 다르겠지만 건설업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지 않은지 걱정스럽다. 수시로 언론을 장식하는 입찰 비리며, 안전 사고 등은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만백성의 부화를 돋게 한다. 기술 경쟁 시대라고 떠벌리지만 외부에서 보기에는 진흙탕식 섭외 경쟁뿐이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가릴 것 없이 막가파식 흑색 경쟁이 난무하는 일이 다반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건설산업이 국가 경제의 기반이고 경제 활동 인구의 20 %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막중한 부문이며 근대 한국의 발전사에서 첫 손가락에 꼽히는 기여를 했다고 아무리 소리를 높여도 귀 기울여줄 이가 많지 않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가 호의적인 시각을 받으려면 건설 관련 단체와 건설인 각자가 문제 의식을 가지고 꾸준한 관심과 시정 노력을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의 변천에 맞추어 다양한 사회 활동에의 참여로 이미지 개선 노력을 충실히 해 나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건설인 개개인에게 보내는 일반적인 시각은 아직은 상당히 호의적이지 않나 싶다. 국토 개발의 주역으로 불린 1960 년대의 '국토 건설 역군', 중화학공업 입국을 위한 외화 획득과 오일 쇼크 극복을 이룬 1970, 80 년대 해외건설의 '산업 전사', 토건 시공에서 플랜트 수주와 엔지니어링으로 눈을 돌린 1990 년대의 '엔지니어', 턴키 수주와 사업 관리에 중점을 두는 21 세기의 건설 소프트웨어 운영자인 '종합 서비스맨'으로 숨가쁜 변신을 하면서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이겨 왔으니 우리가 보아도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오늘날 우리의 건설 기술 수준은 세계 어느 곳에 내놓아도 최일류급으로 찬사를 받을 만큼 성장하였고, 우리는 국내외 어느 곳에서나 최고의 걸작품들을 건설하고 있다.

거리가 온통 붉은 파도로 출렁이는 월드컵 기간을 축제 기분에 들떠 보내면서 이 기간 여러 종족의 외국인들과 어울리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월드컵 개막식 행사에서 어울렸던 피부색 다른 손님들 중 한 사람을 뜻밖에 지하철에서 다시 만났다. 직업을 묻더니 자국에서 한국 건설회사가 열심히 공사하는 것을 보았다며 "코리안 무한데스 넘버원!"하며 엄지 손가락을 번쩍 세워 한참을 기분 좋게 웃었다. 해외에 나가면 모두 당당한 우리 건설인들이 국내에서는 잘못된 건설 관련 제도와 관행에 휩싸여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여러 이유로 오도되고 편향된 시각에 가려 불건전한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점이 매우 많았었는데 참으로 고마웠다.

우리 모두 나서서 지하철과 거리에서 또 경기장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혹은 동반하는 동포들에게 우리의 고속도로와 철도망을 설명하고 아파트촌과 아름다운 도시를 이야기하자. 우리의 앞선 공사 관리 기술을 설명해주고 지구촌 시대를 사는 국제인답게 함께 어울려 건설 한국과 지구촌의 미래를 이야기하여 보자.

우리 건설인들은 이제 건장한 체격과 투박한 말씨로 '현장을 뛰는 사나이'라는 일반의 인식과 기대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사업 관리의 다양한 기술 지식을 되살려 매사에 깊은 검토와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적절한 배려와 세심한 관리로 최선의 성과를 이루는 자에게서 풍기는 '다정하고 지식 있는 믿음직한 친구'가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사상 최대의 흥행 성공과 국민 통합을 이룬 이번 월드컵 대회를 준비하고 지원하면서 우리 건설인들이 곳곳에서 쏟은 노고와 희생이 삶의 족적이 되어 우리 건설인의 바른 모습으로 투영되도록 해보자. 당당히 가슴을 펴고 이웃과 지구촌 가족들 앞에 나서서 우리의 선진 건설 기술을 이야기하며 우리 건설인들의 바른 얼굴과 자랑스러운 긍지를 드러내보자.